

〈자유연제 IV 10:50~11:40〉

상완골 불안정 외과적 경부 골절의 경피적 편 삽입 고정술

박진영 · 김명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론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중년이상의 골다공증이 있는 골절에서 흔하며, 최근 들어 국내 보고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의한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상완골 불안정 외과적 경부 골절에 대한 경피적 편 삽입고정술의 치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994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본원에서 경험한 99례의 근위 상완골 골절 중 외과적 경부 골절은 49례 이었다. 이중 불안정 외과적 경부 골절 19례에 대하여 경피적 편 삽입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8례는 다발성 골절이 동반되었으며, 3례에서 신경 마비가 동반되었다(액와신경, 척골 신경, 상완신경총 마비). 13례가 교통사고 였으며, 낙상이 5례, 1례는 편마비 환자에서 물리치료 중 발생하였다. 수술시 사용한 삽입 편은 평균 4개 이었다(범위; 3-6개). 술후 1례는 부적절한 내고정으로 인한 정복 소실로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술후 2회에 나누어 편을 제거 하였으며, 근위부에서 삽입한 편은 6주에, 원위부에 삽입한 편은 평균 13주(범위; 6-36주)에 제거하였다. 19명의 환자중 13명이 1년 이상 추시 되었으며, 환자들의 평균 추시 기간은 29개월 (범위; 12-60개월)이었다.

결과

전방거상은 142도(범위:80-170)도 이었으며, 체간에 팔을 붙인 상태에서의 외회전은 57도(범위; 5-80도), 팔을 90도 외전한 상태에서의 외회전은 72도(범위; 50-80도), 내회전은 제 8 흥추(범위; 제 7 흥추-제 10 흥추) 였다. 10단계 시각연속 측정표에 따른 통증의 정도는 1(범위; 0-3) 이었으며, 미국 견주관절 의사 연구회의 표준 방법에 따른 기능평가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우수가 5례, 양호가 6례, 보통이 1례, 불량이 1례였으며, 보통 1례는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있었고, 불량 1례는 교통사고 후 편마비가 발생한 환자 이었다.

결론

근위 상완골 불안정 경부 골절에 대한 경피적 편 삽입술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관절적인 방법과 결과를 비교할 때 술식이 간단하며, 상완 골두의 혈행을 방해하지 않고, 편을 외래에서 제거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술식으로 생각된다.